

국산 vs 외산 UTM 본격경쟁 '개막'

넥스지·안연연구소·어울림 신제품 '출시' ... 포티넷·주니퍼 하이엔드 격돌

2008년 4분기 국내 보안 벤더들의 통합보안(UTM) 솔루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UTM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드레인지급 이하에서는 UTM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 미드레인지급 이하의 방화벽 교체 수요는 모두 UTM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글로벌 벤더는 물론 국내 벤더들도 연이어 UTM 장비 출시하면서 미드레인지급 이하에서는 UTM이 아닌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UTM의 시장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스지 V포스 UTM 출시 '선공'

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UTM 시장은 지금까지 외산의 독주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포티넷을 비롯해 주니퍼, 시스코, 체크포인트 등 외산 기업들이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갖고 있는 것이 현실. 이는 외산 기업들이 일찍부터 시장에 대응한 반면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산 기업들은 올해 연말을 계기로 시장 반전을 자신하고 있다. 넥스지가 발표한 'V포스 UTM' 시리즈는 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V포스 UTM은 넥스지가 3년여의 기간을 들여 개발한 야심작. 기능별로 독립된 하드웨어 엔진을 사용해 UTM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고성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넥스지 측은 자신하고 있다.

넥스지는 기존 외산장비의 절반 가량의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뛰어난 성능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VPN 관계 서비스에서 축적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솔루션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 올 방침이다.

안철수연구소 또한 4분기 중 기존 UTM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특히 최근 보안 시장의 핫이슈 중 하나인 DDoS 기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안철수연구소 측은 "2007년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시장의 검증은 이미 끝마쳤다"며 "안티DDoS 기능이 강화된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로 UTM에서도 안철수연구소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WAF와 통합보안 장비의 CC 인증을 획득한 어울림정보기술 또한 조만간 10Gbps에 대응하는 고성능 UTM 제품을 출시할 계획. 어울림정보기술은 제품 출시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포티넷, 하이엔드 시장으로 전진

UTM 시장의 최강자는 바로 포티넷이다. 포티넷은 IDC 조사에서 2008년 2분기 전세계 UTM 시장 1위를 달성, 10분기 연속으로 글로벌 UTM 시장 리더로 선정되는 기업을 토론했다.

포티넷은 경쟁사의 강력한 도전을 하이엔드 시장 진출로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하이엔드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확대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함은 물론 UTM 시장에서의 기술적

리더십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포티넷 측의 복안이다.

하이엔드 시장을 지향하는 포티넷의 전략제품은 바로 블레이드형 솔루션인 '포티게이트5000 시리즈'다. 포티게이트5140의 경우에는 최대 14개의 블레이드를 탑재할 수 있어 비약적 성능향상이 가능하다.

포티게이트는 하이엔드 공략을 강화기 위해 10월 포티게이트5000 시리즈에 탑재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했다. 새롭게 발표된 제품은 '포티게이트5001A'로 포티게이트5140/5050/5020 세시에 탑재된다. 특히 포티게이트5001A는 5000시리즈 제품 중 최초로 AMC를 적용함으로써 최대 13Gbps(방화벽 기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포티넷은 로드밸런싱을 제공하는 네트워킹 블레이드인 '포티스위치 5003A'와 'RTM-XB2'를 함께 출시해 더욱 안정적인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티스위치5003A 허브블레이드는 블레이드와 블레이드간의 10Gbps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며, RTM-XB2는 포티게이트5000 시리즈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포티게이트와 포티스위치 간에 10GbE 통신 채널 역할을 제공한다.

신제품의 핵심인 포티게이트5001A는 10G 이더넷 인터페이스 옵션이 제공돼 확장성을 더욱 높인 점이 특징. 포티게이트5001A DW 모델의 경우에는 듀얼위스(Dual-Width) AMC 확장 슬롯을 제공. 포티게이트3810A 시리즈에 적용돼 성능향상과 안정성을 검증받은

AMC의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이상준 포티넷코리아 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3종의 신제품을 통해 포티넷이 트5000 세시 기반의 초강력 성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를 통해 하이엔드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주니퍼·포티넷 '대격돌'

포티넷의 하이엔드 시장 진출은 우선 방화벽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포티넷의 하이엔드 시장 진출이 UTM 개념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단품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또한 미드레인지급 이하에서도 UTM 솔루션이 그 개념처럼 실제 다기능을 구현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미드레인지 시장에서도 주로 방화벽 용도로 사용되며, 방화벽에 IPS 등의 몇 가지 기능을 덧붙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UTM 기업들의 고백이다.

따라서 하이엔드 시장에서 포티넷의 전략은 우선 방화벽으로의 포지셔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화벽으로 제안하면서 필요 시 IPS, 콘텐트 필터링 등 다기능을 덧붙일 수 있다는 투자보호 측면의 장점을 내세우는 것. 이는 UTM이 미드레인지급 시장을 석권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된 방법으로, 이를 통해 방화벽 교체수요를 UTM으로 끌어온 바 있다.

이상준 사장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UTM과 같은 통합솔루션보다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는 하지만, 포티넷트5000 시리즈는 방화벽으로도 성능우위를 가질 수 있어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이번에 출시된 포티넷트5001A는 방화벽 기준을 최대 13Gbps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포티넷트5001A를

포티넷트5140에 모두 탑재할 경우, 182Gbps의 방화벽 성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현존 방화벽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포티넷이 182Gbps의 방화벽 성능을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하이엔드 방화벽 시장 선두인 주니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니퍼는 지난 9월 120Gbps의 방화벽 성능을 제공하는 'SRX 다이내믹 서비스 게이트웨이(SRX Dynamic Services Gateway) 5600/5800'을 발표한 바 있다. 즉 하이엔드 방화벽의 대명사인 주니퍼 넷스크린보다 높은 방화벽 성능을 앞세워 주니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포티넷의 야심찬 도전장은 성과를 알 수 없다. 60Gbps 가량 앞선 방화벽 성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UTM 시장에서 포티넷의 아성에 다른 경쟁사들이 도전하는 것처럼 하이엔드 시장에서 주니퍼가 보유한 인지도는 쉽게 흔들릴 부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 주니퍼의 인수로 넷스크린의 아성이 흔들리기를 바랬지만, 넷스크린은 여전히 방화벽 시장 최강자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또 주니퍼가 지난달 발표한 SRX게이트웨이는 120Gbps의 방화벽 성능과 더불어 IPS, 안티DDoS/DoS 등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투자보호라는 UTM의 장점을 상쇄시킨다. 나아가 SRX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다이내믹 라우팅, 서비스 품질(QoS) 등을 지원해 보안과 서비스 게이트웨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를 지니기도 한다. 기존 스크린OS(Screen OS)가 아닌 라우터 및 스위치와 동일한 단일 소스 네트워크 운영시스템인 주노스(JUNOS)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성능의 안정성도 인정받고 있다.

다른 한편 주니퍼코리아는 1Gbps 방화벽과 1Gbps VPN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ISG1000을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주니퍼 ISG1000은 10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 공공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보안적합성검증은, 공공기관의 도입을 위해 필수 요소다.

네트워크 보안 시장 무한경쟁 개시

주니퍼코리아는 이번 검증필 획득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국한됐던 시장 영역을 공공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화벽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시장에 대한 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검증필 획득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을 통해 점유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니퍼코리아는 ISG-1000 외에도 방화벽 제품과 SSL VPN 제품에 대해 보안적합성 검사를 올해 안에 통과할 계획으로 공공시장 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시장은 국경원 보안적합성을 기반으로 국산 솔루션들이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 주니퍼의 공공시장 공략 강화는 보안 시장의 판도변화를 예고하는 부문이다.

하이엔드 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포티넷, 공공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주니퍼, 그리고 UTM 시장 대반전을 노리는 국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경쟁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트워크 보안의 무한경쟁 개시로 시장은 더욱 흥미로워질 전망이다.

〈오현식 기자 · hyun@datanet.co.kr〉